

뭉 치 야 산 다!



自然鹿園代表 강성구

40여년전 건국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박사께서 자주 애용하시던 글귀라고 생각한다. 이대통령 말씀에 뭉치면 살고 호터지면 죽는다고 이말은 천고 의 명구라고 생각한다. 왜 이말을 하느냐는 반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명언 구절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슴피에 폐결핵균 20% 오염이라는 청천락뢰 같은 보도 그것도 TV와 전 신문에 한결같은 학대 보도 양록업자면 이 보도에 경악치 않을자가 그 누구일까? 필자도 업자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당황해 했다. 이 맑은 하늘에 벼락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그렇지 않아도 업계는 대단히 소용도리 속에 휘말리고 있는데 설상 가상이라고나 할까? 몇몇 평소에 알고지내든 사람들에게 전화가 온다. 일언에 필적 된다. 노발대발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급해지니까 우선 떠오르는데가 한국양록협회였다. 그러나 여기협회하고 필자하고는 천리상경이 많이던가 이미 두번째의 제명이라는 처우를 감수하고 있던터이니 한측근 인사는 말하기를

망하면 망했지 어찌 양록협회하고 협의대상이 되느냐고 반문을 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차 여기 저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냐고 야단들이다. 공박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생각을 하던중에 번뜩 떠오른것이 이승만박사가 부루짓던 말씀이 생각이났다. 뭉치면 살고 호터지면 죽는다고 그렇다. 이 훌륭한 격언의 말씀 이길만이 이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즉시 양록협회에 전화를 걸었다. 이때는 체면불구하고 오직 뭉치야 산다고하는 생각뿐이었다. 다행이도 협회측에서도 너그러운 말대답이었다. 이때다 싶어서 한걸음에 뛰어갔다. 협회에 가니 안회장을 비롯하여 몇사람이 모여서 이마를 마주대고 걱정을 하고 대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논의된것이 모든 파벌을 초월하여 합심해서 비상대책을 세우자고 자연스럽게 논의되었고 또한 합의되었다. 우리는 뭉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이다.

1. 양록협회 2. 양록협동조합 3. 유통연합회 4. 월간사슴 5. 재야인사 등등이다. 이런 차원에서 양록협회 사무실에서 수차의 협의를 거쳐서 몇가지의 원칙을 결정했다. 즉, 모

임체의 이름을 한국양록비상대책회의라고 하고 이 모임을 이끌기 위하여 10명의 대표를 각 단체에서 비율별로 선출하고 사무의 집행장소는 양록협회 사무실을 이용하고 이 단체의 핵심을 양록협회를 중심으로한다고 우리는 뭉쳤다. 이래서 황급히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사무당국에 요청하여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것을 기틀로 삼아서 활동하였고 8월 14일의 전국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짧은 시간에 각자의 조직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양록사상 최대의 성황을 이루고 즉석에서 모금한 결과 예산을 훨씬 초과하여 2,800만원이라는 거금이 모였다. 이것이 바로 뭉친결과이다. 우리는 이런힘을 바탕으로 활동을 해서 드디어 8월 26일의 성명서를 낼수 있었다. 우리 7,000여 양록인은 한데뭉쳐서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 양록업계는 해야할 사건이 산적해 있다.

그 예를 들면 1. 몇달후에 닥쳐올 수입자유화 2. 누대에 걸쳐서 건의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면세 3. 우리의 생산물이 축산물이나 약이나 4. 사료의 공동구입과 생산물의 공동판매 5. 녹혈판매의 원칙적인 기준설정 6. 제반유통의 체계화 7.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방목을 위한 행정당국과의 조정 등등 이루어야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렇게 많은 사건을 혹은 협회가 혹은 협동조합이 혹은 유통연합회가 혹은 월간사습

이 각자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매우 어려워서 각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때 역시 여기에는 또 한번 뭉치는 지혜만이 해결의 열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러나 다만 뭉치는 방법이 무엇이나 하겠다. 지난 8월 2일의 비상사태 못지 않은 사건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비상사태에서 느낀것은 우선 조직력이었다고 본다. 만약에 양록협회라는 조직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본다.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때에 우리 양록업자는 우리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우리의 단체에 모두가 가입하여 적극참여할때에 우리의 단체는 뭉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기를 그 단체에 가입을 하면 무슨 혜택을 주느냐고 한다. 필자는 분명히 확인한다. 업자 모두의 협조를 얻으면 무슨 혜택 정도가 많이라 산적한 사건들을 하나 하나 해결될 것이 분명하다. 어째서냐고 완전히 뭉쳤으니까 필자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간의 분열행동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굳게 뭉치는 방법으로 무조건 협조할 것을 이 지면을 통해서 약속하면서 각종 양록단체의 대성을 기원한다. ☆

뭉치면 살고 흐터지면 죽는다!